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수 박순철

# 2018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성황'...특별한 추억 선물

### 이순신광장 앞 해상...시민·관광객 등 13만여 명 관람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여수시와 여수밤바다불꽃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이순신광장 앞 해상에서 열린 불꽃축제를 13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힐링 여수'였다. 폭염을 보낸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꽃을 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가장 큰 특징은 불꽃과 해설을 이용한 전개, 음악 등 멀티미디어가 결합된 입체적 연출, 스토리텔링 불꽃 등이었다.

불케이노 불꽃, 오로라 불꽃, UFO 불꽃, 문자불꽃, 불세연출 등 화려한 불꽃이 터질 때마다 관람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특히 국내외 12곡의 음악에 맞춰 연출하는 불꽃쇼, 다양한 색깔의 불꽃이 연출되는 멀티컬러 불꽃 등 신규 불꽃쇼가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시와 추진위는 축제 구성뿐 아니라 관람객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축제 당일 현장에는 시 공무원 512명, 경찰 200명, 해양경찰 44명, 소방관 4명, 자원봉사자 138명 등 898명이 질서유지, 교통지

도, 화재대비 활동을 했다. 또한 축제장소인 이순신광장 일원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만큼 28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차량을 분산시켰다. 28곳의 공영주차장(2989면)은 오후 6시부터 지정까지 무료 개방했다.

올해는 주요 주차장과 연계한 셔틀버스도 첫 운행했다. 전남체육공원과 국동수변공원, 시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26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탑승했다.

지난해 이틀에 걸쳐 개최한 축제를 하루로 단축시킨 점, 개최시기를 8월에서 9월로 개최한 점 등은 관광객 분산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중앙동과 동문동 상가운영자들은 관람객들을 위해 화장실 72곳을 개방했고, 중앙동 여수밤바다지킴이와 자원단체 회원들은 교통정리와 질서유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미담이 됐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한건의 사건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축제를 즐긴 시민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문제점 등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제33회 화순적벽문화축제 개최

### 내달 5일부터 2일간... '명승적벽 1박2일 힐링 여행' 주제



화순군 이서면은 '명승적벽 1박2일 힐링 여행'이라는 주제로 제33회 화순적벽문화축제 행사를 10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주민, 실향민, 관광객 등 1,500여명이 참여 예정인 가운데 이서면 커뮤니티센터, 마항정 일원에서 개최한다.

첫날인 10월 5일에는 화순적벽 풍류놀이체험, 제1회 전국 퓨전국악 난타 경연대회(화순적벽 풍류대진), 사

물놀이, 개막식 및 축하공연, 느티나무 작은 음악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제1회 전국 퓨전국악 난타 경연대회(화순적벽 풍류대진)를 오전 10:00~15:30에 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참가신청(문의 ☎010-6640-0581)을 받으며, 이메일(gt0926@hanmail.net)로 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서는 화순군 홈페이지 축제 포털(<http://www.hwasun.go.kr/festiva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둘째날인 10월 6일에는 제4회 적벽 힐링걷기대회, 화순적벽작은음악회, 대동한마당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특히 주목해야 할 행사는 매년 성황리에 치러지는 적벽힐링걷기대회다. 지난 30년간 통제되었던 아름다운 명승지, 화순적벽을 맘껏 걸으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이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오는 이유이다. 대회는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하며 참가비는 1만원을 받는다. 코스는 편도 5km, 왕복 10km 두 개 코스로 운영되며 참가자에게는 간단한 기념품(간식이용권, 기념품, 물 등)을 제공한다.

개인차량은 이서면 야사리 소재 커뮤니티센터 및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주차장에 주차한 후 셔틀버스로 적벽 초소 입구로 이동한 후 참가할 수 있다. 또한 마항정에서 면사무소, 이서 커뮤니티센터를 지나는 셔틀버스가 왕복 운행될 예정이다. 적벽 힐링 건강걷기대회의 접수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전개

담양군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1~7일)을 맞아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담양문화회관, 군청, 담양여자중학교, (사)북부환경에서 지역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레드서클존(Red Circle Zone) 건강부스를 운영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및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심뇌혈관질환 9대 생활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평생 살아가는 생활습관, 지속적인

자기관리,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며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중점홍보 캠페인과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관리 건강강좌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담양군, '추석맛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

### 오는 21일까지 수도권서 특산물 판매 등

담양군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담양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을 순회하며 '2018 추석맛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10일부터 서울시청과 정부대전청사, 서울특별시 용산구·양천구,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직원과 주민 대상 택배 주문판매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서울광장 용산역, 양천 근린공원, 대전광역시 서구청 로비 등에서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 담양의 특산물 판매 및 알리기에 나선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청정한 담양의 자연과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재배한 햅쌀을 비롯해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감식초, 참기름, 들기름, 무차, 작두콩차, 냉동죽순, 죽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한다.

군은 추석맛이 직거래 행사장을 도·농간 소통과 공감을 일으키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운영하고 내수 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맛과 멋을 선보여 고령 소비자를 늘려나갈 방

참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의 건강은 물론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품격 있는 담양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8일부터 매주 토요일이 축죽원 맞은편 영산강 문화공원 분수대 주변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생산 농가에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영암군, 2018 유기농 & 토하축제 개최

### 오는 14일부터 2일간 학산면 일원서



영암군에서는 오는 14일~15일까지 2일간 학산면 일원에서 2018 유기농&토하축제를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학산면 일원에서 2018 유기농 & 토하축제가 개최되며, 이날 행사에는 영암군수를 비롯한 군의회의장, 도의원, 군의원, 군청 친환경농업과장, 학산면 유관기관·사

회단체장, YWCA 회원, 주민, 학생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영암 할머니네 도란으로 새비 잡으러 가세!'라는 주제로 14일에는 영암군 학산면 학산초등학교에서 전야제 행사로 대동놀이와 공연이 펼쳐지고, 할머니와 함께 하는 하룻밤 농촌 민박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15일에는 오전 9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기농 버논과 하천의 지표생물 특강, 드론으로 담은 영암군 마을 사진전, 전래놀이와 전통 체험마당, 생태탐방으로 유기농 버논과 학산천 둘러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오후에는 학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짚공예, 전통놀이, 유기농 쌀을 이용한 전통음식 만들기, 농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이 펼쳐지게 되며, 친환경단지에서는 메뚜기 잡기, 학산면에서는 토하잡기 행사 등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유기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초청강사 특강으로 농업인의 의견진환, 유기농법을 통해 생태계를 회복해 자연을 살려 농촌에 희망을 싣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도 저탄소 농업기술 기반의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 지원하여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유기농산물의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찬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찬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찬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찬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찬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찬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찬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찬디의 맛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찬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찬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영광우시터

장성군